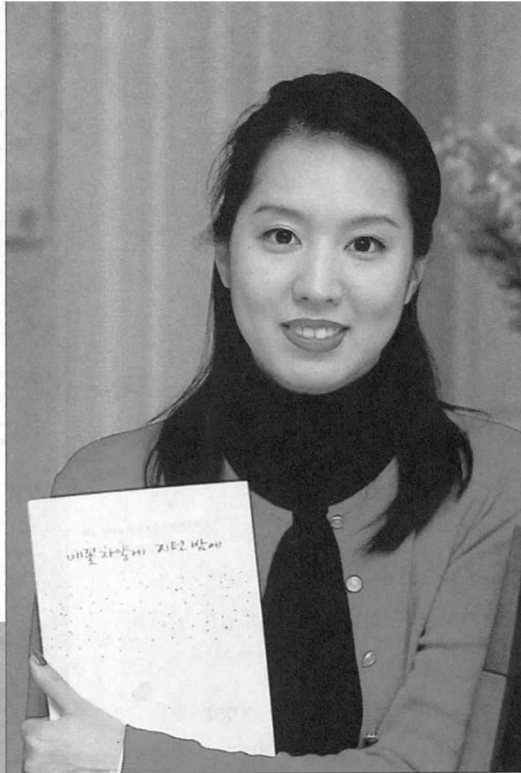


끊임없이 버리는 여백의 아름다움

미술전문 방송인 한젼마씨가
뽑은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



한젼마씨는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이철수의 판화집에 끌리는 것은 아니다. 한젼마씨가 이 책에서 보는 것은 판화 그림 주변의 여백이다.

모태신앙이어서 천주교 세례명을 그대로 이름으로 삼은 화가이자 미술전문 방송인 한젼마씨(31). 그녀는 대학교 4학년이던 지난 1992년 학교를 지나다가 우연히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게 됐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등 10여 개의 질문이 큰 활자로 적혀 있었는데, 그게 그만 그 당시 자신이 생각하던 궁금증과 똑같았다.

"그 포스터를 보고 포교원까지 가게 됐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애가 제 대신 질문하더군요. '깨달으려면 산으로 가야 하나요?' 그랬더니 스님이 저마다 그릇이 다르니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 때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미모와 달변이 눈에 띄는 미술전문 MC에 화가, 거기에다 미술서 《그림 읽어주는 여자》를 펴내 저술가의 길까지 접어든 그녀가 서가에서 뽑아든 책은 이철수의 판화작품집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문학동네). 약간 의외였다. 하지만 그 사정을 알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책은 범정의 《산에는 꽃이 피네》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를 두고 고민한 끝에 내린 선택이다.

"이 책의 그림들은 모두 주변의 것을 다 깎아내 만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느다란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것을 모두 버려야 해요. 이렇게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한젼마씨는 책을 펼쳐 들고 그림을 가리키며 열에 들며 말했다. 천주교인으로 동양철학을 거쳐 불교서적을 섭렵하면서 한씨가 깨달은 것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배우겠다는 자세다. 그런 점에서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의 많은 부분을 떼우는 하얀 여백을 그녀는 무척 좋아한다. 그 여백을 깎아내지 않았다면, 이철수의 아름다운 그림은 없었다는 얘기.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여져요."

아직까지는 버릴 것보다 배울 일이 더 많기 때문이리라. 지난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중들을 위한 미술서 《그림 읽어주는 여자》를 펴낼 수 있었던 용기도 다 배우는 과정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했다. 책들의 가르침에 비하면 너무나 분주한 생활이지만, 그 책들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끊임없이 배우는 동시에 자신을 비워내는 삶. 그 삶으로 가기 위한 길 위에 한씨는 서 있다. - 김연수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 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재판·인쇄·제본 등의 공정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사담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